임실군, 우리 동네 치즈올림픽 개최

임실방문의 해 맞아 군외 거주자 대상 11월 말까지 사격 응모 가능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을 위해 '치즈올림픽'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을 위해 '치즈올림픽'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군은 사계절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몸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치즈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번 치즈올림픽의 주 종목은 청웅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의 사격이다.

참여 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이며, 임실군 외 거주자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참여 조건은 임실군청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채널 임실엔TV) 팔로우 및 구독 후, 사격장 내 10m 공기권총 사격 체험을 해 10발 109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사격장 내 비치된 배너 안의 QR 코드를 접속하여 네이버 폼 양식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입 후 SNS 팔로우 인증샷과 사격점수 달성 점수판 인증 사진을 각각 1장씩 첨부하면 된다.

증정 선물은 3만원 상당의 임실 치즈·요거트 세트이며, 월 3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기입된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이뿐만 아니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오수 의견관광지, 사선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천만관광 실현을 위한 특색있는 사계절 축제와 함께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 식재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숙박비 결제액의 30% 최대 5만원까지 할인하는 숙박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대학생 팸투어, 인플루언서 임실 투어 등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임실군을 찾은 외부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사계절 꽃길 만든다

양지천 일대에 여름 · 가을꽃 식재… 사계절 관광지 육성

지난 4월 봄꽃으로 물든 순창군 양지천이 계절을 넘어 사계절 명소로 거듭난다.

군은 민선 8기 5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꽃잔디와 수선화, 튤립이 장관을 이뤘던 양지천 산책로에 올여름부터 가을까지 또 한 번의 꽃길을 조성하며 '사계절 꽃길' 만들기에 나섰다

그동안 봄꽃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버들마편초, 황화코스모스, 일반 코스모스를 차례로 식재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색다른 꽃길 풍경을 선사하고 연중 관광객이 찾는 계절형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하반기부터 경천 산책로 꽃길 조성, 양지천·경천 합류부 공원화, 야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과 휴게시설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향후 꽃 축제, 체험 프로그램, 사진명소 운영, SNS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기획해 양지천을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체류형 감성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양지천은 이제 이름만의 하천이 아니라, 계절마다 시민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순창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감성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시정 현안 공유 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6일, 최근 발령받은 임기제 공무원 28명과 각 부서 서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정 현안 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먼저 시장의 PPT 공유를 통해 남원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강을 가졌다.

또한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고민 및 민원 응대를 비롯한 나만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며 각자의 업무 영역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인천공항버스 운행 재개

6월 4일부터 운행

남원시는 오는 6월 4일부터 남원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인근지역으로 이동해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노선은 동광양, 광양, 순천, 구례, 남원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 남원에서는 일 1회 상행은 남원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1시 40분에 출발하고, 하행은 인천공항 제1, 2터미널에서 9시에 출발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순창소방서는 27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2025년 안전한국훈련을 순창군청과 협업하여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과 하천 제방 붕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현장 훈련은 경천변 일원에서 이뤄졌다.

순창소방서는 이번 훈련에서 실종자 구조, 긴급구호, 이재민 대피 및 피해복구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했다.

이날 훈련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 총 16개 기관·단체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팔덕저수지 범람에 따른 사망자 4명, 부상자 26명(긴급 6, 응급 10, 비응급 10), 재산피해 약 40억원(주택 전파 2채 등)을 가정한 복합 재난상황을 실전처럼 대응했다.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이 토론훈련을 주재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부군수)이 현장훈련을 총괄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최우수'

남원시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법인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받아 추가 사업비 1억6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올해 최종 사업비 2억7천8백만 원의 추가된 사업비로 농가 조직화교육, 마케팅 사업 등에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인과 관내 5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되어 신규 자금 32억원을 3년간 1.25% 이자로 지원받게 되어 기존 지원자금 2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3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금은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인 관내 5개 농협에서 농가 경영 안정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농가 선지급금,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금 등 원물 확보 및 농자재 일괄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CCTV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당 최대 100만 원 차등 지원 방식으로 신규 설치 또는 전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마을이며, 설치 장비는 200만 화소 이상의 적외선 기능 카메라 2대 이상, DVR(녹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카메라 또는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당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5% 이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방범 인프라를 강화해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실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성수산서 청소년 체험활동 진행

임실군이 '성수산, 발끝으로 느끼는 자연 탐험'을 주제로 청소년 주말 체험활동을 성수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배우고 느끼는 생태·문화탐험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임실 지역 초등학교 청소년 20여 명이 참가해 성수산 황토길 맨발 걷기, 숲 생태 관찰, 상이암 역사 탐방 등 풍성한 야외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신발을 벗고 황토길을 걷는 '맨발 트레킹' 활동을 통해 숲의 감촉과 소리를 온몸으로 체험했으며, 문화해설사와 함께 활동한 상이암 등산 및 사찰 탐방 활동에서는 임실의 대표적 역사문화 공간인 상이암에 얽힌 전설과 불교문화에 대해 배우며 지역의 전통과 뿌리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